



인간을 압도하는 말의 힘

언어는 이데올로기와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가

진중권 · 독일 베를린대 미학 전공

넓은 근대적 언어관

근대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세계가 있다. 이 세계 속에 사물이 있고, 이 사물들은 이미 질서가 잡혀 있다. 사물들을 대신하는 것이 낱말, 이 낱말들의 총체가 언어다. 인간은 이 언어를 사용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언어는 인간이 소통의 필요에서 만들어낸 '수단'이다. 사물과 낱말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모든 개인은 저마다 자의적으로 자기만의 사적 언어를 갖는다. 하지만 각자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면 타인과의 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에, 개인들은 편의상 협약에 의해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언어는 사회성을 띠게 된다.

복거일의 영어공용화론의 바탕에 깔린 관념이 바로 이 넓은 근대적 언어관이다. 이 언어관의 특징을 보자. 먼저 도구주의. 여기서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도구'로 간주된다. 수단의 본질은 효율성에 있기에, 국제화시대에 정보전달에 효율적인 영어를 사용하자는 발상이 무리 없이 나오는 것이다.

둘째, 사회에 선행하는 개인이라는 관점. 사적 언어들이 '협약'에 의해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낸다는 이 근대적 언어기원론은, 근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인 사회계약론의 언어학적 변주다. 사실 복거일의 영어공용화론은 진지한 탐구의 결과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일반적인 자유주의 신조의 도발적 표현으로 보인다.

개인에 선행하는 언어공동체

하이데거는 동어반복을 좋아한다. 가령 "말이 말을 한다", 혹은 "시가 시를 짓는다." 전자는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보는 근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후자는 예술을 인간중심의 창작의 산물로 보는 근대 미학에 대한 비판이다. 하이데거에게서 '언어'는 곧 '시', 둘은 우리에게 '근원적 진리'를 열어준다. 그가 말하는 '진리'란 명제진



언어관은 이데올로기의 거울이다. 《문자의 역사》(시공사) 중에서.

리가 아니라 존재론적 진리. 가령 그리스인은 신상과 신전을 세워 그것을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의 망을 구축하고 그 위에 문화를 쌓아올렸다. 그들에게 신상과 신전이라는 작품은 한갓 미적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조직하는 원리. 언어와 시도 마찬가지로, 즉 이 둘은 하나의 민족이 그 위에 고유의 삶의 세계를 세우는 바탕이라는 것이다.

이는 복거일 반대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즉 언어는 '공동체의 삶의 표현'이기에, 이를 한갓 수단의 효율성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언어공동체는 개인에 선행하고, 외려 이 공동체의 언어가 비로소 한 개인을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 견해의 바탕엔 개인 대신에 전통을 더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관념이 깔려 있다. 하이데거에게 그 공동체란 '민족'과 '국가'. 따라서 굳이 말하자면, 이 견해는 우익 공동체주의에 가깝다. 조선일보에서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것도 실은 정치적 보수주의의 특징

도구주의적 언어관을 절대화하면, 모든 인간적 목표와 가치를 수단화하는 천민성에 빠지고, 언어의 세계정립적 기능을 절대화하면, 논증보다 세계관의 선포에 몰두하는 좌우의 선동이 난무하게 된다. 인간을 언어의 주인으로 보는 근대 인간중심주의를 절대화하면 조야한 이기주의에 빠지고, 언어를 인간의 주인으로 보는 탈근대의 반인간주의를 절대화하면 무지막지한 집단주의로 흐르게 된다.

인 전통주의의 표현일 뿐이다.

자연과 인간의 평등한 대화

발터 벤야민 역시 도구주의적 언어관을 비판한다. 그건 언어에 대한 "부르주아적 관념"이라는 것이다. 벤야민은 유태의 창조설화로 돌아간다. 에덴동산에서 사물은 이미 언어를, 제 이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없는 사물을, 목소리를 가진 아담이 그 이름으로써 불러주었다는 것이다.

사물과 낱말의 관계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양자 사이엔 본질적 '담음'의 연관이 있었다. 그 시절의 언어엔 사물의 본질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사물의 언어적 본질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사물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자연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언어관, 도구주의적 언어관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때부터 인간과 대화하기를 그치고 "자연은 애도를 한다."

이제는 근대 도구주의적 언어관에 대한 좌

익적 비판, 자연을 착취하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이다. 즉 자연을 도구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지배하기를 그치고 인간과 자연이 평등한 지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미메시스(서로 닮기)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이 언어관을 주창한 사람은 없지만, 이는 요즘 활발히 일어나는 환경운동이나 생명운동의 이론적 모티브로 주목할 만하다. 단,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폭력에서 이 근원회귀의 길을 보았던 벤야민의 종말론적 시나리오는 탈신화화하는 게 좋겠다. 좌파의 언어관은 민족전통주의에서 점차 이 쪽을 향하여 무게이동을 해야 한다.

무정부주의적 언어관

낱말을 들여다보아도, 그 안에서 사물의 본질이 떠오르는 않는다. 가령 '사과'라는 낱말을 듣고 우리가 사과의 표상을 떠올리는 것은 기호의 반복적 사용에 따른 조건반사일 뿐이다. 여기서 벤야민이 사과와 '사과' 사이에 존재론적 연관이 있었던 기원로서의 회귀를 꿈꾼다면, 테리다는 이를 '현전의 형이상학'이라 거부하며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즉 '사과'는 결코 사과를 의미할 수 없다. 가령 '사과'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과일의 일종', '과일'은 '열매'... 이런 식으로 기호사용은 시니피앙의 무한연쇄에 빠질 뿐, 결코 기호체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리하여 '텍스트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근대의 철학자들이 하나의 기호에 단 하나의 의미만을 주려고 했다면, 테리다에게서 기호작용은 멈추지 않고 영구운동을 하며 꽃불처럼 스러지는 다양한 의미를 산출한다. 기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이 의미의 사슬 끝에 어떤 최종적 의미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역사에도 어떤 정해진 '목적'(telos) 혹은 벤야민적 의미의 '끝'이 있는 게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정학(靜學)이 아니라 동학(動學).

